

140 번째 기도 편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 5 장 29 절)



할렐루야!

지난 4 월 15 일부터 시작한 안식년이 어느덧 6 개월이 지났습니다. 쏠살같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 3 개월 정도는 그동안 미뤄 왔던 아버님의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도와드리고, 재활 과정을 살펴 드리며 온전히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인도로 떠나온 지난 30 년 동안 자녀로서 부모님께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는 죄송한 마음이 늘 컸습니다. 언제까지나 저희 곁을 든든히 지켜 주실 것만 같았던 부모님께서 어느새 연로해지셔서 누군가의 세심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분 모두 연로하신 데다 몸도 편찮으셔서 집을 정리하는 일부터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무릎이 불편하신 만큼 지금 사시는 2 층 집에서 가까운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야 할 텐데,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마음만 앞설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곁에 머물 수는 없기에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1. 인도 단기선교, 다시 확인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식년 중이지만 7 월 18 일부터 25 일까지 남서울교회 단기선교팀 8 명과 함께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동행하면서, 30 년 전 처음 단기선교팀으로 인도 땅을 찾았던 초심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4 월 총선 이후 BJP 정권 아래에서 기독교 사역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는 상황이라 과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은혜공동체교회의 주일학교 사역과 순덜본교회에서 진행한 성경학교 등, 선교팀이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도, 자신이 받은 것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함께 사역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뒤, 순덜본 선데시 칼리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극단적인 힌두교인들이 여러 명의 불량배를 대동하고 교회를 찾아와 손또스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를 집요하게 캐물으며, 일주일 안에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힌두교 정권이 들어선 이후, 헌당 예배를 앞둔 교회가 파괴되는 등 곳곳에서 위협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염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신속한 법적 조치와 다른 사역자의 파송을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때입니다. 인도 현지 사역자들이 더욱 깨어 일어나야 하며, 성도들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지켜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힌두교의 뽀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캐나다와 미국에서 만난 가족, 그리고 귀한 동역자들

인도 방문을 마친 후에는 밴쿠버에 있는 세 딸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세 자매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독립해 생활하는 줄리아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퇴근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등 평범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어느덧 훌쩍 자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숙해 가는 아이들을 보니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셔서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미국 LA에 계신 누님 댁에도 잠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윤목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한인소망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가족과의 만남뿐 아니라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3. 충신에서의 세미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한국에 돌아온 직후인 10월 6일에는 로수종 목사님의 모교인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대 속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주제로 세미나도 진행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기회였지만, 진 선교사가 새벽부터 구토 증상을 보이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정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세미나를 마친 후 다음 날 병원을 찾았더니 A형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몸살로 고생하며 시차 적응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 있었기에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수액 치료도 받을 수 있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준비한 만큼 세미나를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상웅 교수님과 후원해 주신 김진현 목사님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4. 기도로 채워 주시는 안식년, 다시 사명을 준비하며

이렇게 여러 일정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안식년의 6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왕성교회에서 5 월에 40 일 특별저녁기도회를 통해 안식년 시작을 기도로 무장하게 하였고,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에는 '40 일 감사 기적 특별저녁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지난 6 개월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6 개월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남은 안식년의 시간 동안 영과 육이 충분히 재충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인도 땅으로 돌아갈 때 기쁨으로, 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인도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으로 가득 채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 결혼 30 주년, 인도 선교 30 주년을 맞으며

오는 10 월 26 일은 저희 부부의 결혼 30 주년이자 부부로 함께 인도 선교 감당한 3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 년 동안 저희 부부의 삶과 사역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한마음으로 감당하며, 두 손 맞잡고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더욱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 호주 방문,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

11 월 10 일부터 25 일까지는 호주를 방문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후원해 주신 시드니제일교회와 단기선교팀으로 여러 차례 함께 사역했던 Living Hope Presbyterian Church 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직접 만나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기대하며,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잘 돌려보내고 서로 도전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격려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 안식년 중 다시 인도로, 흔들리는 교회를 붙들며 호주 방문을 마친 후인 11 월 30 일에는 잠시 인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교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고, 12 월 성탄절 사역과 연말 정산 및 정부 보고 등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힌두교의 팽박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안식년 기간이지만 다시 인도로 향하려 합니다.

진 선교사는 한국에 조금 더 머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며, 인도 선교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며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올해도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30 년 동안 인도 땅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년 10 월 16 일

로수중, 진혜경, 샤론, 줄리아, 세라

은혜 공동체 식구들

후원 하시려면

하나은행 010-04-06388-042 GMS 로수중

신한은행 355-12-055-930 진혜경

Tel: +91-33-2416-7718 (H); +91-33-2416-1475 (Ch)

Mobile: +91-98306-44208; +91-98307-76629

E-mail: jinhyeekyong@gmail.com